

간호사의 자긍심 '휘장 달기' 캠페인

단원병원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간호부"

간호사 문화개선 및 복지증진에 주력



삼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종의료기관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단원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이미화)는 휘장 달기에 참여하면서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최고의 간호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미화 간호부장은 "올해 간호부 슬로건을 '행복한 간호사, 행복한 간호부'로 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한마디, 선생님!'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단원병원(이사장 문용식, 병원장 최석광)은 '초일류 질관별 전문병원'을 비전으로, '세상에서 설명을 가장 잘 하는 병원'을 미션으로

간호부는 '안전하고 표준화된 간호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간호부' 미션 아래 간호표준화 및 설명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호사들 복지를 위해 외부교육비 및 교육공과 연 3일, 무급휴가 1개월, 임신 시 단축근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기근속자 보너스, 동호회 활동비, 기숙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주간 및 학술대회, 부서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신입간호사를 위한 1:1 프리젠테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oo@koreanurse.or.kr

건강대병원 간호사 존중문화 캠페인

건강대병원(병원장 최원준)은 '간호사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간호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은 물론 간호사의 자존감과 유대감을 높이고 병원 조직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캠페인 포스터를 전 병동에 부착하고, 임신 중인 간호사를 더욱 배려하기는 취지에서 '에비맘' 배지를 제작해 패용토록 했다.

최원준 병원장은 "간호사는 환



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간호사를 대하는 생각과 태도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인 강남병원(병원장 정영진)은 제1차 인증유지관리 자체조사를 11월 7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이지영 간호부장, 이재정 QI실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각 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을 면담 조사했다.

이진영 간호부장은 "이번 단원병원 전 병동에 부착하고, 임신 중인 간호사를 더욱 배려하기는 취지에서 '에비맘' 배지를 제작해 패용토록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용인 강남병원 인증유지관리 자체조사 실시



손 위생 등을 점검했다.

용인 강남병원은 향후 인증평가 주도적으로 대비하며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수정 기자 sjchoi@



사랑·나눔 바자회 전국대병원

국회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박미영)는 사랑·나눔 바자회를 11월 9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알뜰한 소비문화를 장려하고, 어려운 환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바자회에서는 교직원들이 기증한 물품과 먹거리가 판매됐다. 수익금은 병원 사회사업팀에 기부해 어려운 환자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박미영 간호부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료제민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기부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정 기자 sjoh@

경희의료원 간호본부 단합대회



경희의료원 간호본부(본부장 유재선)는 단합대회를 '너와 나 우리 함께 멀리! 우리 함께 높이!' 주제로 11월 11일 개최했다.

유재선 간호본부장은 "이번 단합대회는 간호본부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직종이 함께한 자리로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면서 "내년에도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 신나는 간호본부 단합대회를 갖자"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본부 전 직종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성모 인공신장센터 간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이날 단합대회에서는 스피드퀴즈,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며 화합을 도모했다.

주혜진 기자 hjoo@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규간호사 워크숍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간호국(간호국장 심재숙)이 신규간호사 워크숍을 '열정 up! 스트레스 down! 하나되는 우리' 주제로 11월 7일 개최했다.

각자의 부서에서 적응하며 전문직 간호사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쏟았던 2017년 신규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출산 모정답길길을 걷고, 정성 레일바이크를 타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국에서는 신규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영자를 선물했다.

신규간호사들은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가천대 길병원 간호연구 워크숍



가천대 길병원 간호본부(본부장 박효선)는 '간호연구 워크숍'을 11월 11일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수간호사와 주임간호사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논문 테이블 리딩과 내용분석 및 실제 논문에 적용하는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윤혜상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가 특강을 했다.

참가자들은 특강을 들은 후 조별로 실습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효선 간호본부장은 "바쁜 업무 중에도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더욱 실력 향상과 '간호연구결과'가 간호실무 개선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중앙대병원, 일본 간호사 초청연수 실시



중앙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조진경)는 일본 가고시마 대학병원 간호사 초청연수를 10월 23~27일 실시했다.

중앙대병원과 가고시마대학병원은 상호교류 및 학술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맺고 있다.

연수팀은 중앙대병원 의료체계 및 간호환경을 경험했다.

간호사들이 열정을 다해 환자를 간호하고, 간호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연수 참가자들은 "한국 간호사들이 열정을 다해 환자를 간호하고, 간호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성가톨릭병원 책임간호사 힐링 워크숍



성가톨릭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최인자)는 책임간호사 워크숍을 10월 28일 개최했다.

책임간호사들의 힐링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간호사들은 순천시 낙안읍성과 순천만습지, 순천만국립정원원을 둘러봤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책임간호사의 역할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했다.

참가자들은 "'나'가 아닌 '우리'

가 되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간호현장에서 소통·공감하는 관리자가 되어 후배들이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아주대병원 '간호연구 및 근거기반실무' 학술대회



아주대병원 간호본부(본부장 박미미)는 '간호연구 및 근거기반실무(EBP) 사례' 주제 학술대회를 11월 10일 개최했다.

간호연구 결과와 근거기반실무 사례를 공유해 실무능력과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간호연구 4편, 근거기반실무 사례 6편이 발표됐다.

유문숙 아주대 간호대학장이 총평을 했다. 병동간호1팀이 대상을 받았다.

박미미 간호본부장은 "임상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간호가 발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상간호연구와 근거기반실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전북대병원 임상간호 연구결과 발표회



전북대병원 간호부(간호부장 유말봉)가 임상간호 연구결과 발표회를 10월 31일 개최했다.

간호부는 임상간호연구를 통한 과학적 접근으로 간호의 질을 향상시켜 전문직으로서 간호를 발전시키고자 매년 연구결과를 발표해왔다.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해 근거기반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총 3편(신경계 중환자실,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간호연구위

원회)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간호사들은 "매년 열리는 발표회가 임상연구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중앙보훈병원 간호본부 워크숍 및 단합대회



중앙보훈병원 간호본부(병원장 이경열, 간호본부장 김향숙)는 '2017년도 간호본부 관리자 워크숍'과 '단합대회 및 체력단련'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업무스트레스 대처방안과 갈등해소 및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 향상방안' 주제로 열렸다.

총 5개 부서가 자유주제로 발표하고, 임상실습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단합대회와 체력단련에는 중간관리자들이 참석해 양양 죽도정 산책로에서 자연숲과 바다를 즐겼으며, 서로 화합하고 정을 나누는 뜻 깊은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주혜진 기자 hjoo@



아나바다 바자회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간호국(간호국장 송말순)은 1004Day 간호봉사활동으로 '아나바다 바자회'를 열었다.

간호사와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과 간호사들이 직접 만든 먹거리 등을 판매했다.

바자회 수익금 500만원을 다문화가정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성남월드후반브리지에 전달했다.

내원객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했다.

송말순 간호국장은 "해가 갈수록 바자회에 관심을 갖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바자회를 꾸준히 진행해 더 많은 이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SIGVARIS 다리 that boots, heavy? advertisement.

Advertisement for '샤르망' (Scharm) hospital uniforms.

Advertisement for the 47th Korean Association of Nursing Science and Nursing Management Conference.

Advertisement for Yonsei University Global Future Education Institute.

Advertisement for the 2018 National Nursing Association Training Course.